

옛 우물의 전설

물없이 살아 갈수 있는 생명체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하기에 개경의 곳곳에는 고려의 건국과 발전사와 관련된 뜻 깊은 우물들이 있어 그것이 후세에 길이 전해 지고 있다.

1

때는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 지기 썩 이전이었다.

서해바다의 검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큰배 한척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바다바람을 몰아 잡는 큰 돛폭들이 겹겹이 세워 져 있는 배는 검푸른 바다를 건너 가고 있는중이었는데 선창에는 여러가지 물품들이 무드기 쌓여 있고 갑판우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중에는 큰활과 화살뭉음을 등에 진 한 젊은이도 있었다.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는 부리부리한 눈길로 바다건너 어데 먼곳을 바라보며 배가 떠난 날부터 오늘까지 연 이틀동안 입을 꼭 다문채 말 한마디 없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어느 때 같으면 동쪽에서 붉은 해가 두둥실 솟아 오를 그 시각에 무거운 구름이 내리 덮이고 안개가 자욱히 끼면서 배의 앞길을 가로 막아 나섰다. 방향을 정할수 없게 된 배는 더는 갈수 없게 되었다. 배안에 탔던 사람들은 겁을 먹고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급해 난 배주인이 점을 친즉 나온 점괘 또한 참 괴이하였다.

《무장을 갖춘 젊은이 하나가 그 배에 올랐은즉 그를 내려 놓으면 배길이 열릴지어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이 망망대해에서 사람을 내려 놓으라는것이야 그를 바다물속에 빠져 죽으라는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이때 뜻밖에도 그 과묵한 총각이 앞으로 척 나서는것이 었다.

《소인이 무장을 갖춘 젊은이올시다. 신령님이 친히 부르시니 소인으로서 어찌 응하지 않겠소이까. 소인이 내려야 배가 떠날수 있다니 기꺼이 내리겠소이다. 그럼 먼길에 모두 무고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자기 소개에 이어 작별인사까지 마친 젊은이는 사람들이 미처 말릴새도 없이 성큼 배전밖으로 나서는것이였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으나 그보다 더 놀라운것은 그후의 일이였다.

젊은이가 배에서 내리자 그 자리에 바위가 솟아 나고 안개가 활 걷히면서 순풍이 배를 밀어 가는것이였다.

드넓은 바다위에 홀로 선 그는 외롭기 그지없었다.

배가 멀리 사라지고 조용해 지자 놀랍게도 한 늙은이가 그의 앞에 나타나 허리 굽혀 절을 하는것이였다.

머리카락은 검푸른색이 감돌고 허연 수영발은 가슴아래까지 드리웠는데 두눈에서는 이상한 광채가 감돌고 있었다.

흰옷을 단정하게 차려 입은 늙은이가 어딘가 모르게 간절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서해바다의 룡왕이요. 요즘 나에게 이겨 내기 힘든 사정이 생겨 하늘에 방조를 청했더니 오늘 이곳을 지나는 배우에 젊은 신궁(귀신 같은 궁술을 가진 사람)이 타고 있을것이라며 그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것이 아니겠소. 그래서 내가 달리던 배를 잠시 멈춰 세웠던것이요.

어떻소? 그래 젊은이는 하늘의 신명을 받은 몸으로서 이 늙은이를 도와 줄수 있겠소?》

《저의 궁술은 별로 신통치 못해 신궁이라고 부르기는 이르지만 저의 미력한 솜씨를 다하여 도와 드릴터인즉 그래 룡왕님의 절박한 사정이란 대체 무엇이시오이까?》

《요사이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요사스럽기 이룰데 없는 괴물인지, 여우귀신인지 모를 놈이 나타나 이 늙은이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놈을 그대가 죽여 달라는것이요. 그놈은 매일 저녁무렵이 되면 하늘세계 부처의 탈을 쓰고 공중으로부터 내려 와서 뽀얀 안개속에 소라나팔을 울리고 북을 쳐대는가 하면 바위위에 틀고 앉아서 바다가 떠나가도록 불경을

읽어 대군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늙은이의 머리가 빠개지는것처럼 아파 오고 사지에 맥이 빠져 그 고통을 다 표현할수 없을 지경에 이르곤 한다오.

그대가 활을 신묘하게 잘 쏜다니 원컨대 그 궁술로 나의 피해를 덜어 주면 더없이 고맙겠소.》

《그렇게 해보겠소이다.》

그 젊은이가 이처럼 흔연히 응하자 즉시에 서해룡왕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웬 처녀가 나타나더니 다소곳이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젊은이는 놀라왔지만 원래가 든든한 사나이의 심장이라 태연한 자세로

《그대는 과연 뉘시오?》라고 물었다.

《저는 그대와 방금 이야기를 나눈 서해룡왕의 딸이옵니다. 귀신의 솜씨를 지니셨다는 그대께서 조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늙은 아버지의 심려를 덜어 드리겠다고 자청해 나서시니 너무도 고맙고 감격해서 인사를 드리고저 렴치불구하고 그대앞에 나타났소이다.》

처녀는 정말로 아름다웠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칼이 함치르르하게 드리워 진 머리태며 희디흰 살결에 반짝이는 눈빛, 균형 잡힌 코와 선홍색이 가볍게 비껴 진 작은 입술이 조화를 이루어 그림속의 선녀와도 같았고 흘러 내린 몸매는 세련미가 느껴 지면서도 온몸에서 향긋한 향내가 풍겨 와서 그 절색을 무엇이라 표현하기 힘들었다.

처음으로 아름다운 처녀와 마주 선 그의 심장은 느닷없이 쿵쿵 울렸고 호흡마저 가빠 지는것 같았다.

젊은이는 그 시각부터 룡왕의 딸과 함께 늙은 《여우귀신》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기 시작하였다.

하루해가 넘어 가기 시작할무렵이였다. 갑자기 하늘의 구름이 뭉게뭉게 내려 오더니 멀리 중천에서 요란한 음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것이였다.

젊은이는 큰활에 청동활촉의 긴 화살을 메워 들고 힘껏 당긴채 긴장해서 하늘우를 쳐다보았다. 아니나다를가 금빛나는 옷자락을 훤히 날리며 구름을 타고 《부처님》이 내려 오는것이 아닌가.

젊은이는 그만 주춤하였다. 저것이 진짜 부처라면 그에게 살을 날린 나는 천벌을 받게 될것이다.

이때 그의 옆에 서 있던 처녀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빨리 화살을 날리시오이다. 저놈은 부처님이 아니라 분명 늙은 여우귀신이오이다. 순간을 놓치면 그대와 나도 다 해를 입을수 있소이다.》

처녀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하늘에서 우렁우렁한 말소리가 울리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천상의 신령스러운 부처를 해치려고 하는고?

그래 그대는 그 죄악으로 지옥에 떨어 지는것이 두렵지 않단 말인고? 그대는 즉시에 활을 거두고 부처앞에 대령할지어다.》

젊은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룡왕과 그리고 처녀와의 다진 약속을 어길수 없어 화살을 날리기로 마음 먹었다.

《핑...》

두손가락에 걸었던 활줄이 튕겨 나면서 긴 화살이 구름우에 올라 앉아 호령치는 《부처》의 가슴팍에 면바로 들이박 혀다.

그 순간 《으악-》 하는 괴이한 비명이 하늘과 바다를 울리더니 구름은 온데간데 없어 지고 젊은이와 처녀가 서 있는 바위우에 무엇인가 텅텅 떨어 져 내리었다.

그것은 바로 온몸에 흰 털이 뒤덮인 늙은 여우였다.

룡왕의 딸은 두눈에서 맑은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젊은이앞에 허리 굽혀 큰절을 하는데 바다물속에서 솟구쳐 오른 룡왕은 너무도 기뻐서 젊은이를 거둬 치하하면서 그의 손을 이끌어 서해바다속 룡궁으로 청해 가는것이였다.

서해바다물속의 룡궁은 참으로 으리으리하였다. 우뚝우뚝 솟아 있는 기암괴석사이마다에는 키를 넘는 바다풀들이 아름답게 자라 너울거리고 옥돌을 깎고 산호를 다듬어 쌓은 궁전은 마치도 꿈속의 신비경을 들여다 보는듯 하였다.

며칠간 룡궁에 머물러 후한 대접에 빠져 있던 젊은이는 이제는 그만 돌아 가겠노라고 청을 드렸다.

그러자 룡왕은 심중한 낯색을 지으며 묻기 시작하였다.

《그대는 내 생명의 은인이요.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런데 어떻게 그대의 궁술이 그리도 뛰여 났소? 그리고 그대는 뉘 집 자손이요.》

《예. 룡왕님께서 소인더러 뉘 집 자손인가고 물으셨는데 먼저 어머니에 대해서 엿쭈을까 하옵니다.

소인의 어머니는 원래 원대한 포부를 안고 송악군에서 사신 외할아버지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고 하옵니다.

하루는 어디선가 지체 높은 귀족 한분이 송악군에 나타나서 두루 살펴 보더니 이 땅이야말로 도읍을 이룰만 한 곳이라고 칭찬하며 저의 외할아버지집에 류숙하였다고 하옵니다. 바로 그 귀족을 우리 어머니가 처녀의 몸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한달만에 태기가 생기자 그분은 집을 떠나며 생남하거든 아들에게 주라고 활과 화살을 남겼다고 하옵니다.

어머니는 제가 16 살이 되는 해에 아버지가 남겨 두고 간 활과 화살을 넘겨 주시였소이다.

저는 어린시절부터 어머니에게서 록예를 배워 그에 능통하게 되었는데 특히 활쏘기에서는 그 누구도 이길 자신이 있사옵니다.》

룡왕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머리를 끄덕이며 긍정하였다.

《그대는 뛰여 난 혈통을 타고 났으니 성인이 틀림 없도다.》

잠시 주저하던 젊은이는 이욕하여 자기의 속생각을 털어 놓았다.

《소인을 성인으로까지 믿어 주시니 황송하기 그지없소이다. 솔직히 여쭙건대 사나이가 한번 이 땅에 나서 큰뜻을 품지 않으면 어찌 대장부라 하겠소이까? 그래서 나라를 건국할 성지를 찾아 불가 하여 떠난 길이었사옵니다. 소인은 동방의 임금이 되려는것이 소원이옵니다.》

《엉?!》

깜짝 놀란 룡왕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침착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대의 기개는 아직 동방의 임금이 되기에 이르지 못하였소. 욕망을 앞세운다면 기필코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니 임금이 되려는 소원은 적당한 때를 맞이해야 이루어 질것이요.

그런즉 동방의 임금에 되려면 <건>자가 붙은 이름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자손까지 3대를 거쳐야 될것이요.》 하면서 금빛나는 종이우에 《세울건》자를 써주었다.

젊은이는 몹시 실망하였다. 남 모르게 품어 온 큰뜻을 한생에 실현할수 없었기때문이었다. 아직도 총각의 몸인 그에게 있어서 자손에 대한 문제는 너무도 아득한 래일의 일로 여겨졌던것이다.

이때 서해룡왕의 곁에 앉아 있던 한 늙은 신하가 젊은이의 마음속생각을 가늠해 본듯 물었다.

《그대에게는 아직 일생의 배필이 없으시오?》

이성에 대한 문제는 아직 생각밖이었던 그가 얼굴을 붉히며 말을 못하자

《그대는 자기곁에 천하의 절색을 두고도 왜 그의 마음을 들여다 보지 못하시오.》

하고 꺾꺾 웃음을 터뜨리는것이였다.

그러자 도리어 룡왕의 딸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렇게 되어 젊은이는 서해룡왕의 딸을 안해로 삼게 되었고 룡왕을 장인으로 모시게 되였다.

그들이 성대한 혼례식을 치르고 지상으로 올라 가게 된 날 아침이였다.

서해룡왕은 그들부부에게 칠보패물을 안겨 주면서 동방으로 가서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당부하였다. 그의 눈앞에는 금불이와 마노, 산호 등 그 이름도 처음 듣고 생전에 보기도 처음 보는 진귀한 보물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안해는 그 모든 보물에 흥심이 없는듯 랑군님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이였다. 그러자 젊은이는 손에 들고 있던 일곱가지 보석들을 내려 놓으며 룡왕에게 아뢰였다.

《장인님, 저에게 7 보대신 장인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버드나무지팡이와 돼지를 주시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영?》

룡왕은 얼굴색이 달라 지며 주저하는것이였다. 하더니 무엇인가 결심한듯

《그 두 물건은 나쁜만아니라 우리 서해룡궁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신비로운 보물이요. 그러므로 그것을 남에게 함부로 주어서는 안되지만 이 늙은것을 위해 큰덕을 쌓은

그대를 위해 무엇을 아끼겠소. 하니 그 두가지중에서 돼지를 내어 주겠으니 넓게 양해하오.
아마도 그놈이 대업을 이룩할 도움지로 그대를 이끌어 갈것이요.》

젊은이는 배에 7 보와 돼지를 실은 다음 안해와 함께 해안에 도착하였다.

해안에 다달으고보니 그곳은 서강(례성강)이 바다와 합류되는 지점이었다.

서강기슭의 사람들은 큰 경사가 났다고 기뻐서 어찌할바를 몰라 하였다.

《룡왕이 자기 사위가 된 송악군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이 땅에 대통운이 틀 징조로다. 그러니 우리 어찌 룡왕의 딸과 사위를 레사롭게 모실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젊은이를 신령스러운 인물로 대했고 장차 이 땅을 위해서 큰 위업을 이룩할 성인으로 우러러 보면서 서강가의 넓은 지역에 토성(영안성)을 쌓고 그안에 그들부부가 거처할 집을 지었다. 그럴수록 그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과연 이들의 성의와 기대에 어떻게 보답할수 있단 말인가? 내 대에 성취 못한 대업을 손자대에 가서라도 꼭 실현시켜 겨레의 명성을 온 세상에 떨치고야 말것이로다.

아, 하느님이시여. 건국의 원대한 뜻이 현실로 이루어 지도록 해주옵소서!)

그들부부가 아무런 불편없이 영안성에서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곳에는 물이 발랐다. 그러니 물속에서 살던 룡녀로서는 물이 한없이 그리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룡왕께서 하사 받은 돼지가 산기슭을 따라 남향의 나지막한 등성이 아래에 이르더니 땅을 헤집는 시늉을 하였다.

돼지의 행동에서 무슨 암시를 받은 안해가 조심히 그곳을 파보니 맑은 물이 콧구멍 솟구쳐 오르는것이 아닌가. 그 물맛은 참으로 유별하였다. 그 물을 마시고 나면 기백이 솟고 정신이 맑아 지면서 담이 굳세여 지는것이였다.

젊은이의 원대한 포부에 대한 구상은 더욱더 무르익어 갔다.

《여보, 이 우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를가요?》

《우리가 바라는 대업을 이룩하는데 생명수가 되어 달라는 의미에서 큰 대자를 붙여 <큰 우물>이라고 부릅시다.》

지금도 개풍군 연강리의 대정동에 가면 그날에 그들부부가 이름 지은 《큰 우물(한우물)》이 있다고 한다.

2

그들부부가 영안성에서 새 살림을 편지도 어느덧 일년이 넘었다.

그동안에 그들은 서강기슭의 주와 현들을 무른 메주 밧듯 하면서 자기의 웅대한 뜻을 펼쳐 갈 성지를 고르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발걸음을 옮겨 갈수록 마음속에는 불만족이 없어지지 않았다.

우선 광활한 경토를 총괄할 주산이 없는것이다.

하다면 어느 산을 주산으로 정하고 그 터전위에 웅대한 리상의 씨를 뿌릴것인가?

젊은이는 저 멀리 줄줄이 솟아 있는 송악산, 오관산, 천마산 등의 련봉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언젠가는 그들에게 삶의 생명수를 찾아 준 그 보배스러운 돼지가 갑자기 영안성밖을 넘어 서려고 애 쓰는것이였다.

공공거리는 돼지를 유심히 지켜 보던 젊은이가 혼자소리처럼

《너는 서해의 룡궁에서 보배로 취급되던 몸이고 또 장인님께서 길한 물건으로 나에게 하사하였은즉 우리는 네가 가리키는 곳을 기꺼이 수락할것이니 적지를 알려 주기 바란다.》라고 하자 돼지는 그의 말을 알아 들은듯 곧추 앞을 내다보며 성밖을 나서서 걸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돼지는 일개의 짐승이 아니라 령험스러운 예언자로 변한듯 싶었고 지어 신령스럽게 느껴 오기까지 하였다.

아침 일찍 길을 떠난 돼지는 동북쪽으로 침없이 걸었다.

하루길을 줄기차게 걸어 송악산 남쪽기슭 남향의 안침한 곳에 다달은 돼지는 맥이 진한듯 스스럼없이 척 드러누워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돼지가 잠든 그 지대야말로 천하명당자리와도 같았다. 뒤에는 드높은 송악산이 병풍을 둘러친듯 솟아 있고 좌우에는 실한 산줄기가 유하게 흘러 내려 희한한 지세를 이룬데다가 저 멀리 앞에 서해바다가 바라보였다.

(바로 이곳이로구나! 천지조화가 한곳에 집중된 이곳이야말로 선조의 넋을 받들어 우리의 대업을 이룩해 갈 성지로 구나.)

그들부부는 돼지가 누웠던 자리에 궁궐같이 덩실한 새집을 일으켜 세우고 어린시절에 체득한 룩예를 더욱 연마하면서 하늘의 도사로, 도덕군자로 명성을 떨쳐 갔다.

송악군의 모든 백성들은 호방하고 담대한 젊은이의 기상에 감탄을 금치 못해 하면서 성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는 송악산기슭의 그의 집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안해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두고 온 부모형제와 정든 고향생각이 갈마들었다.

영안성에 살적에는 지척의 서강을 따라 서해의 룡궁으로 찾아 가곤 하였지만 서해로부터 수십리 떨어 진 송악산기슭에서는 그것이 거의나 불가능하였기때문이었다.

하여 안해는 새 우물을 파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생의 활력을 부어 줄뿐아니라 룡궁으로 오가는 통로로 되기도 하였기때문이다. 우물이 완성되는 날에 그는 남편에게 자기가 룡궁으로 드나들 때 절대로 눈여겨 보아서는 안된다고 오금을 박아 놓았다.

어느덧 30 여년세월이 흘렀다.

그동안에 그들부부에게는 여러명의 아들딸이 태어났고 그들의 머리위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 땅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던 마가을 어느 날이었다.

그의 안해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서해룡궁에 다녀 올 차비를 서둘러 며칠간의 품을 들인 다음 딸을 앞세우고 바다길로 떠났다.

이때에 문득 남편의 머리에는 의문이 생겨 났다. 그래서 30 여년만에 처음으로 약속을 어기고 그들의 룡궁행차를 몰래 훑쳐 보기로 작정하였다. 서해로 향하는 모녀의 모습을

슬그머니 들여다 보던 그는 깜짝 놀랐다. 오색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올라 뜰안을 가득 채우더니 모녀가 룡으로 변하여 우물속으로 사라지는것이 아닌가? 정작 그토록 사랑하던 안해와 딸이 룡으로 변신한것을 보는 순간 그는 기절초풍하였다.

얼마후 룡궁에서 돌아 온 안해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은 레사롭지 않았고 속기 빠른 안해는 그것을 못 알아 볼리 없었다.

안해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준절하게 말하였다.

《대장부의 신의는 일구이언 안하는 법이고 그래야만이 큰 일을 할수 있사옵니다.

더우기나 기이하게 만나서 한몸이 된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약속을 지키는것은 백년해로를 지켜 주는 대문과도 같사옵니다.

그러나 랑군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셨으니 저는 땅우에서 살수 없는 몸이 되었고 다시는 그대곁으로 돌아 올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저는 비록 떠나간다 해도 랑군님께서 아이들을 잘 키워서 조상전래의 녀를 이어 그대가 품으신 원대한 뜻을 꼭 이 땅우에 펼쳐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그러면 저도 서해바다 깊은 곳에서 충심의 만세를 불러 거룩한 위업을 축원해 드리겠소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서해룡왕의 딸은 30 여년전 본래의 모습으로 되어 사라졌다.

《여보-》

《어머니-》

애 타게 부르는 남편과 자식들의 애절한 부름소리가 서해바다 룡궁에까지 절통하게 울려 갔다.

줄지에 안해를 잃은 그는 속리산절간에 들어 가 슬픈 마음을 달래면서 생의 말년을 보내었다.

하늘의 뜻으로 서로 만나 원대한 포부를 간직한채 한생을 마친 그들의 소망은 3 대를 이어 왕건에 이르러 성취되었다고 한다.

왕건이 선조들의 뜻이 숨배여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만월대 왕궁을 세우고 한생토록 그 우물의 물을 마셨다고 하여 그것을 《왕우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지금도 만월대 본전 회경전의 드높은 축대아래에 《왕우물》이 원상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런데 그 우물물은 언제 보아도 천여년전 그날 서해룡궁의 딸이 몸부림치며 일쿠어 놓은 흙물이 오늘도 가라앉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서해바다와 통한 우물이어서 바다물이 흘러 들었는지 항상 뿌옇게 흐려 있어 우물밑바닥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릇에 떠낸 물은 청룡의 몸색갈이 그대로 어려 있어 푸릿한 색갈우에 붉은색, 보라색이 아롱져 있다.

그러나 오래 묵은 향나무들이 우거져 《왕우물》은 그 물맛과 수질이 개경일판에서 으뜸으로 소문나 먼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병없이 오래 살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 지지 않고 있다.